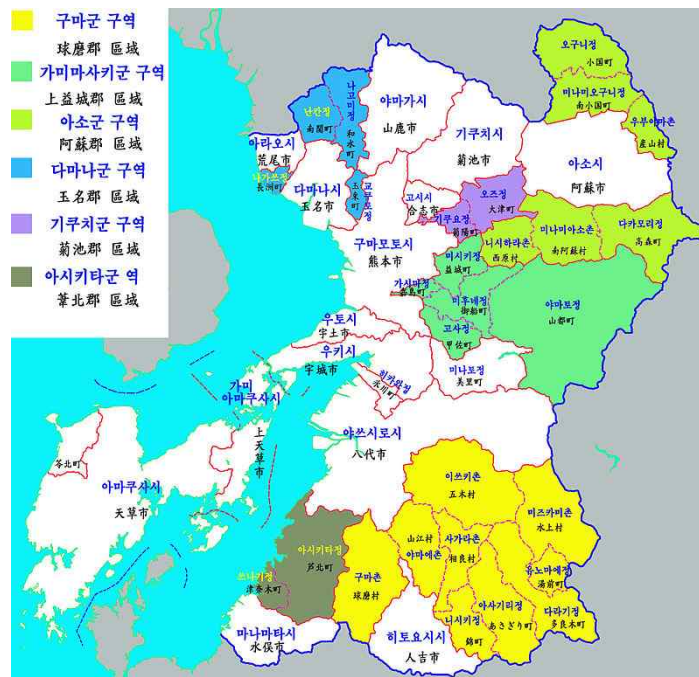


일본 구마모토현 사회적경제조직 조사보고서



2014. 12

차 례

I. 출장개요	1
1. 출장명	2
2. 배경 및 목적	2
3. 일정 및 출장자	3
4. 세부일정	4
II. 구마모토현	5
1. 지역개요	6
2. 방문도시 소개 및 방문기관	7
III. 구마모토현의 사회적경제정책	8
1. 개요	9
2. 지역진흥과	9
3. 남녀협동참가과	14

IV. 구마모토 소셜비즈니스 서포트넷 활동15

- 1. 개요 16
- 2. 활동상황 16
- 3. 지원사례 18

V. 구마모토현의 사회적경제조직 활동19

- 1. 치카켄 20
- 2. 아소그린스톡 23
- 3. 규슈바이오매스포럼 25

VI. 향후 교류협력 방안29

- 1. 구마모토현 및 KSBSN 30
- 2. 구마모토현 사회적경제조직 31



I. 출장 개요



I. 출장 개요

1. 출장명

- ▶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연구조사 및 교류협력 플랫폼 구축

2. 출장배경 및 목적

- ▶ 마을자산을 적극적인 사례조사
- ▶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조사
- ▶ 지속적인 교류 플랫폼 구축

구체적인 목표	방문 조직
• 마을자산을 활용한 사례조사	CHIKAKEN
	(재)아소그린스톡
	규슈바이오매스포럼
•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조사	상공정책과 등 현청조직
	구마모토 SB 서포트넷
• 지속적인 교류 플랫폼 구축	상공정책과 등 현청조직
	구마모토 SB 서포트넷
	CHIKAKEN
	(재)아소그린스톡
	규슈바이오매스포럼

3. 일정 및 출장자

- ▶ 일 정
 - － 2014년 11월 4일(화)－7일(금) : 3박4일
- ▶ 주요 방문도시
 - － 구마모토현(熊本県) 구마모토시(熊本市), 아소시(阿蘇市)
- ▶ 출 장 자(5명)
 - －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송두범센터장, 박춘섭책임연구원, 홍은일연구원
 - － 충남사회적기업협의회: 박찬무회장
 - －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안수영연구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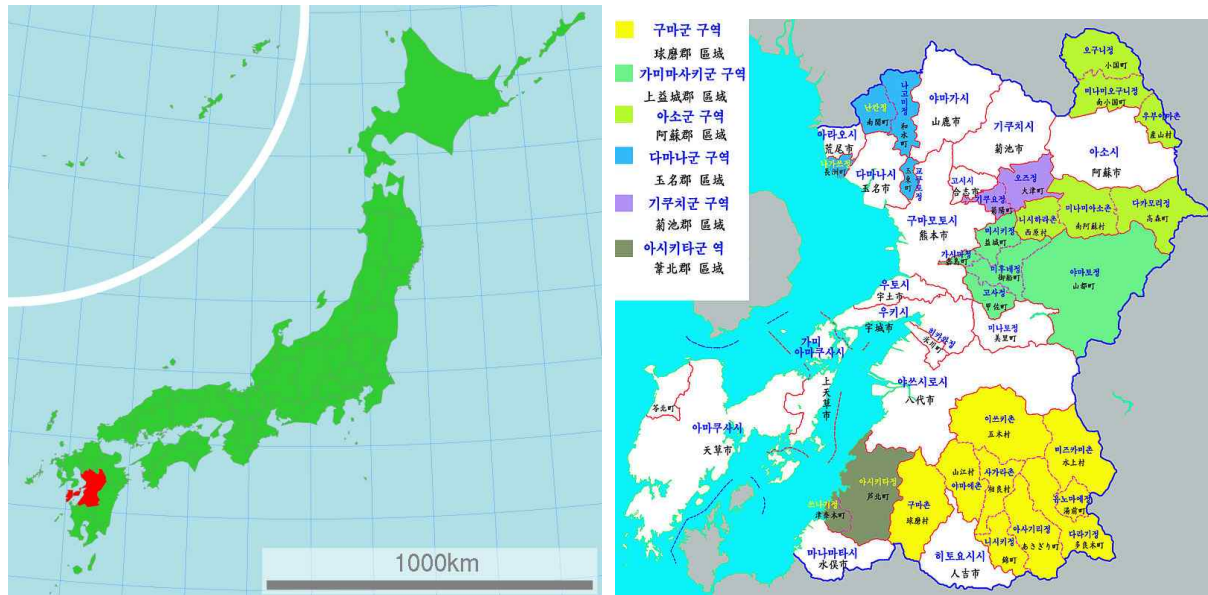
소속 및 직위	성 명	전화번호	이메일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송두범		dbsong@cdi.re.kr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책임연구원	박춘섭		irisian@cdi.re.kr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연구원	홍은일		podo0246@cdi.re.kr
충남사회적기업협의회 회장	박찬무		coldmoo72@gmail.com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연구위원	안수영		sociology@hanmail.net

4. 세부일정

일차	월/일	시간	내용	비고
1일차	11월 4일(화)	14:00 → 15:10 15:50 → 16:10 16:21 → 16:58 17:00 → 17:30 17:30 → 19:00	인천 → 후쿠오카 후쿠오카 → 하카다역 하카다역 → 구마모토역 숙소이동 저녁식사 후 자유시간	
2일차	11월 5일(수)	09:00 → 09:30 09:30 → 12:00 12:00 → 13:30 13:30 → 14:00 14:00 → 17:00 17:00 → 19:00 19:00 → 20:00	구마모토현청으로 이동 구마모토현 관계자와의 간담회 점심식사 CHIKAKEN으로 이동 CHIKAKEN 견학 CHIKAKEN 담당자와의 간담회 숙소이동	구 마 모 토 현 관계자 미팅 시, 구마모토 SB 서포트넷 관계자 동석
3일차	11월 6일(목)	09:00 → 10:30 10:30 → 12:30 12:30 → 13:30 13:30 → 17:00 17:00 → 18:00	아소그린스톡으로 이동 관계자와의 간담회 점심식사 아소시 주요시설 견학 저녁식사후 휴식	
4일차	11월 7일(금)	09:00 → 09:30 09:30 → 12:00 12:00 → 13:00 13:44 → 16:10 19:20 → 20:40	큐슈바이오매스포럼으로 이동 관계자와의 간담회 점심식사 아소역 → 후쿠오카공항 후쿠오카 → 인천	

II. 구마모토현(熊本県)

1. 지역 개요



[그림 1] 구마모토현의 위치와 시세(출처:<http://ja.wikipedia.org/wiki/熊本県>)

- 1) 구마모토현(熊本県)은 일본 큐슈 중앙부에 있는 현으로, 현청 소재지는 구마모토시(熊本市)이다. 서울에서 비행기로 1시간 정도(631킬로미터)의 거리에 위치해 있다. 면적은 7,405km²(충청남도는 8,204km²), 현의 60%가 산림이 차지하고 있다. 북부는 비교적 높지 않은 산지이지만, 동에서부터 남쪽으로 표고 1,000미터가 넘는 산들로 둘러싸여 있고, 곳곳에 계곡들이 형성되어 있어 장관을 이루고 있다. 특히 세계 최대 규모의 칼데라를 자랑하는 아소산(阿蘇山)의 경관은 뛰어나다. 현의 서쪽으로 아리아케해(有明海), 야쓰시로해(八代海), 동중국해를 접한다.
- 2) 기후는 대체로 온난하지만, 내륙성 기후로 여름과 겨울이 뚜렷하다. 평균기온은 16~17도 정도, 여름은 35도가 넘는 때도 있다. 겨울 영하로 내려갈 때도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10도 이하로 내려가는 일은 거의 없다. 인구는 2005년 현재 185만명이다. 고령화율(65세 이상 인구비율)이 23.7%로 일본 전국 평균 20.1%보다 높아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 3) 구마모토현의 경제구조(2009년)는 1차 산업의 비율이 2.7%로 일본전국평균의 1.1%의 2.5배 수준이며 반면 2차 산업은 19.2%(평균 22.8%)로 낮은 수준이다. 3차 산업은 78.1%(평균 76.1%)로 높다. 현내 총생산액은 5조6049억엔, 현 소득은 3조 9587억엔, 1인당 현민 소득은 2,183천엔으로 전국평균의 2,791천엔의 80%수준이다.

- 4) 특히 농수산업은 일본 전국의 탑 클래스를 자랑하는데, 수박, 토마토, 메론, 감귤, 쌀 등은 주요한 농산품이며, 수산물 역시 참돔, 복, 새우 등의 출하량이 높고, 축산업과 임업도 중요한 부분이다. 제조업의 비중은 일본 전국 평균보다 낮으나, 반도체 등의 하이테크산업과 운송용 기계산업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기업유치를 하여, 반도체 및 운송용 기계 관련기업이 집적되어 있다. 최근에는 태양전지관련 산업진흥에 힘쓰고 있다.
- 5) 역사적으로 볼 때 구마모토현은 일본 공해의 원점이라고 불리는, 수은중독으로 인한 공해병인 미나마타병(水俣病)이 발생한 지역이기도 하다. 미나마타병이란 칫소(チッソ、窒素)주식회사라는 비료회사가 메틸수은화학물이 섞인 폐수를 바다에 방류하면서 발생한 수은중독이다. 이것은 미나마타지역 그리고 구마모토현에 오랜 상처를 남겼다. 최근까지 계속되어온 공해병인정신청 및 손해배상청구소송뿐만 아니라 ‘미나마타=공해지역’이라는 대중적인 이미지가 있어 어려움을 겪었다.

2. 방문도시 소개 및 방문기관

- ▶ 熊本市: 구마모토현의 현소재지
 - 방문기관: 구마모토현 사회적경제(SE)관련 부서(지역진흥과 등), 구마모토 소셜비즈니스(SB) 서포트 넷, 사회적경제조직 ‘CHIKAKEN’
 - 활동내용: ① 구마모토현 SE관련 부서와의 간담회 및 향후 협력방안 협의
 ② 구마모토 SB 서포트넷(중간지원조직)과의 간담회 및 협력방안 협의
 ③ CHIKAKEN의 사례조사 및 정책적 시사점 도출
- ▶ 阿蘇市: 아소산을 중심으로 자연자원이 풍부한 도시
 - 방문기관: 사회적경제조직 ‘(재)아소그린스톡’과 ‘규슈바이오매스포럼’
 - 활동내용: ① (재)아소그린스톡의 사례조사 및 협력연구방안 협의
 ② 규슈바이오매스포럼의 사례조사 및 지역의 바이오매스활용방안 협력 연구 협의

III. 구마모토현의 사회적경제정책



1.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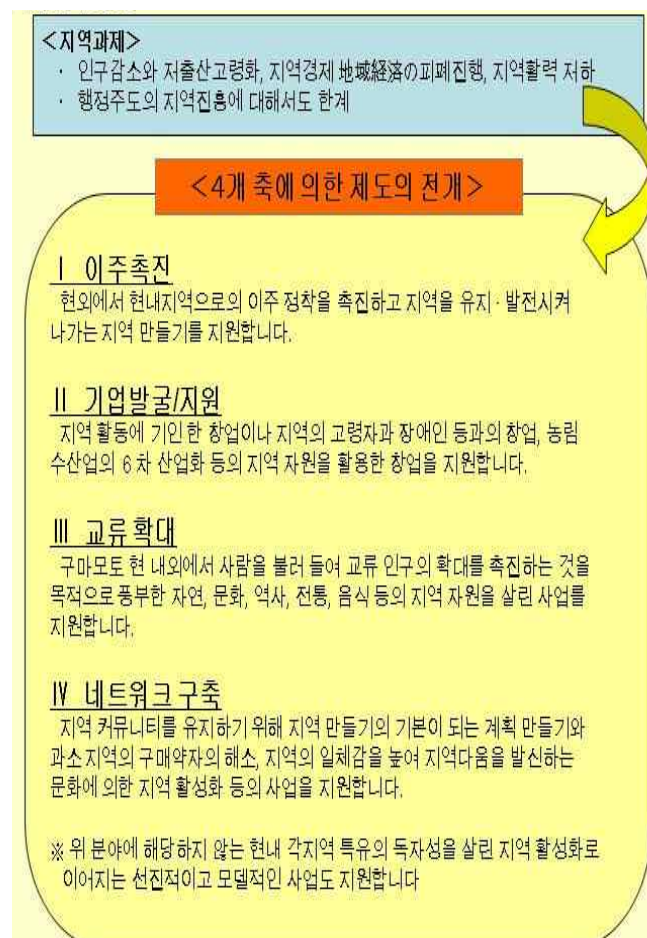
- 1) 구마모토현의 경우, 사회적경제정책(통상 일본에서는 소셜비즈니스 또는 커뮤니티비즈니스로 통용)을 상공정책과, 지역진흥과 등 다양한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다.
- 2) 이하 각 부서별 사업 및 성과, 현황 및 사례를 소개한다.

2. 지역진흥과(地域振興課)

－ 지역만들기 꿈챌린지 추진사업제도

1) 목적

구마모토현내 어느 지역에 있어도 자부심으로 가득 찬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과 시정촌에 의한 지역자원과 개성을 최대한 살린 자주적인 활동을 강화하고 “활력넘치는 건강한 쿠마모토”만들기를 추진하기 위하여.



[그림 2] 지역만들기 꿈챌린지추진사업제도의 제도개요

2) 제도체계



[그림 3] 지역만들기 꿈챌린지추진사업제도의 개요 팜플렛

3) 사회적경제조직 지원내용(II기업발굴/지원-커뮤니티비즈니스 기업화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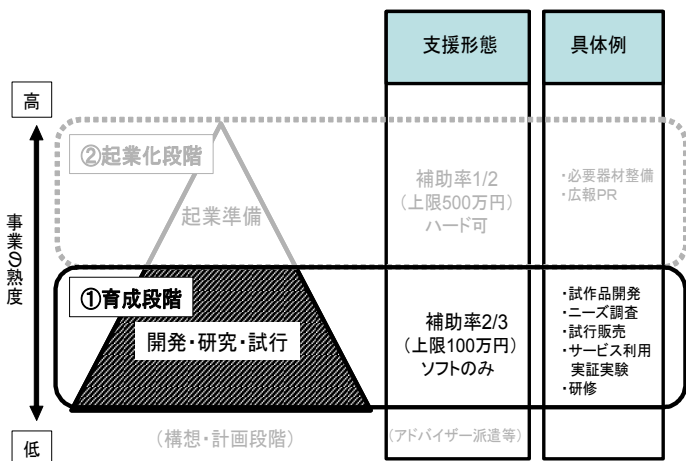
① 목적

: 지역 커뮤니티의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해 지역 주민들이 사업의 방법을 활용하여 지역의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기업(起業)을 향한 노력지원

② 대상조직 및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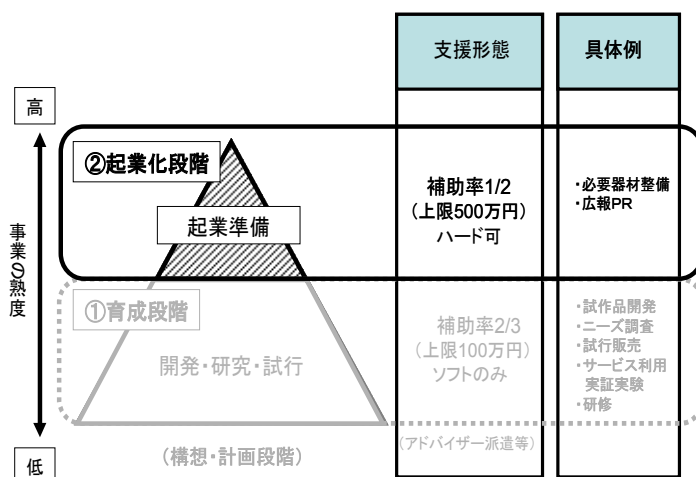
: 대상은 지역단체(지역사회조직, 지역만들기단체, NPO법인 등)로 대상지역(초등학교구와 대학 등, 주민생활에 일정한 규모가 있는 지역)에서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시작과 규모 확대를 목표로 하는 단체에게 보조금교부.

- 육성 단계에서는 미래의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시작하거나 규모 확대 목표가 있고, 그를 위한 상품 개발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대상. 상품개발, 연구, 시행, 시장조사 및 실증실험 등 미래적인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기업화를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 대상 경비 2/3이내, 상한 1,000천엔.



※ **유의사항** : 커뮤니티 비즈니스 실행에 필요한 관계 법령에 규정하는 인허가 등을 받았거나 또는 받을 예정인 것이어야 함.

- 기업화 단계에서는, 평성 26년도내의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시작 또는 규모 확대를 위해 그에 필요한 시설정비 등의 비용을 대상. 시설정비, 비품구입, 홍보선전,接客연수 등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시작과 규모 확대에 필요한 경비. 대상경비 1/2이내, 상한 5,000천엔



- ※ **유의사항** : 지역 관계자 (주민 조직이나 사업을 실시하는 데 협력이 필요한 단체 등)의 의사를 반영하거나 이해를 얻는 절차가 취해지고 있는가. 사업실시에 필요한 관계법령에 규정하는 인허가 등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 이어야함.

③ 지원사례

1) 마을부엌 아카리

- 내용: 독거노인 및 2인 고령자 세대를 대상으로, 지역(로컬푸드) 식재를 가지고 값싸게 도시락을 만들어 보내주는 사업을 추진. 주 3회 배달.
- 지원사업연도: 2011년
- 사업비(보조대상경비): 6,046천엔
- 보조금(교부결정액): 4,321천엔

2) 시타요로즈야(下萬屋)

- 내용: 평성5년부터 ‘마차새벽시장’을 개최하고 있는 ‘마차활성화회’, 지역의 하얀벽을 보존하는 ‘지역경관보존회’의 멤버가 중심이 되어 ‘마치아이보존회’를 설립하고, 향토식 레스토랑을 개업.
- 지원: 지역의 하얀벽건물을 활용하여 교류거점(향토식레스토랑) 정비하고, 향토식자재를 사용한 식사를 제공.
- 지원사업연도: 2011년
- 사업비(보조대상경비): 2,452천엔
- 보조금(교부결정액): 2,211천엔

3) 동부지구활성화협의회

- 내용: 미리쵸(美里町)는 고령화율이 50%를 넘어선 촌락. 비교적 재배가 쉬운 ‘메밀’을 가지고 마을만들기를 추진. 특히 ‘현메밀’은 이익률이 낮아 가공/판매의 필요성이 대두됨.
- 지원: 요리개발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 레스토랑 오픈 시 필요한 설비, 홍보지원
- 지원사업연도: 2012년
- 사업비(보조대상경비): 9,519천엔
- 보조금(교부결정액): 5,137천엔

4) 스게지구산촌교류비즈니스협의회

- 내용: 2010년부터 스게지구 7개의 농가가 엔가와카페를 열어, 농번기를 빼고 매주 일요일

일 집을 개방하고, 산촌교류를 시작함.

- 지원: 이러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의 폐교를 이용하여 사토야마(里山)레스토랑 오픈
- 지원사업연도: 2011년
- 사업비(보조대상경비): 2,385천엔
- 보조금(교부결정액): 2,385천엔

5) 기구가마을(菊鹿町)말린감(干し柿)연구회

- 개요: 기구가마을의 생감을 자연풍에 말려 좋은 품질의 말린감을 만들었다.
- 지원내용: 이 사업에 ‘훗베’라는 상품등록, 아이스크림 시제작, 패키지 디자인 제작 등을 지원.
- 지원사업연도: 2011년
- 사업비(보조대상경비): 2,971천엔
- 보조금(교부결정액): 2,588천엔

6) NPO법인 니시하라탄포포하우스

- 개요: 아소의 산간부 역시 고령화 과소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주변에 가게/마트가 없는 상황이다. 현재 식료품은 일주일에 한번 오는 이동판매에 의지하고 있는 상황. 아소지역의 특산물의 소고기와, 닭고기 등을 사용한 카레 등의 캔제품, 간편식을 만들고 있음.
- 지원: 캔이나 간편식을 만들기 위한 시설지원 및 상품 개발 및 디자인 지원.
- 지원사업연도: 2011년
- 사업비(보조대상경비): 2,971천엔
- 보조금(교부결정액): 2,588천엔

7) 마그(MAG)

- 개요: 이구사(イ草: 골풀)의 산지이지만, 최근의 중국산 대두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농가가 생존하기 위해 다양한 상품 개발을 하고 있음.
- 지원: 시제품개발경비(아로마오일제작기), 강습회, 성분분석비용
- 지원사업연도: 2011년
- 사업비(보조대상경비): 1,600천엔
- 보조금(교부결정액): 750천엔

3. 남녀협동참가과(男女協同參加課) : 새로운 공공사업

1) 목적 및 배경

- 다양한 입장의 사람과 단체가 협력하여 필요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시스템)= ‘새로운 공공’에 주목하고 , 특정비영리활동법인(NPO) 등이 주체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 ‘새로운 공공’이란, 종래 행정만이 ‘공공’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현민, NPO, 기업등 다양한 주체들이 적극적으로 공공적인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가 되어, 의료, 교육, 돌봄, 마을만들기 등 생활영역의 분야에 지역의 과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시스템, 체제를 말한다.
- 본 사업은 NPO등이 자립적으로 활동하도록 지원하는 한편, ‘새로운 공공’의 정착과 참가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2) 활동기반조성 사업추진

- NPO 등의 활동이 사회에 인지되고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정보발신, 매니지먼트와 같은 스킬, 협동 가능한 상대와의 네트워크 등이 필요하지만 충분치 않다. 그러므로 이러한 기반조성을 강화하기 위해 ‘NPO이해촉진’, ‘인재육성’, ‘환경정비’의 3개 분야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3) 지원사례 : 새로운 UD종합프로듀스의 담당만들기 사업: NPO법인 UD구마모토

- 평성 18년 ‘배리어프리신법(고령자, 장애인 등의 이동이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이 시행되어, 지금까지 대상 외였던 차도, 주차장, 공원 등도 배리어프리가 의무화 되었다.
- 이 법률은 배리어프리 정비시, 고령자와 장애자의 의견을 반영해야 하는 특징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의견청취가 잘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구축까지 요구되었다.
- UD구마모토는 고령자와 장애인등 활동적 제약이 있는 사람들이 외부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인이었다. 이 조직은 배리어프리 시설이 가장 이상적으로 현실화 될 수 있도록 건축사무소협회 및 현과 같이 홍보활동을 같이 하고, 노인클럽, 돌봄협회 등의 의견청취, 참가협력 등의 연계사업을 원만히 이루어 내었다.
- UD 구마모토는 사업전체의 신축과 개축의 많은 공사에서 다양한 입장의 제언을 했다. 이러한 활동이 높게 평가되어 2012년 배리어프리/유니버설디자인 추진공로자표창을 수상하였다.

IV. 구마모토 소셜비즈니스 서포트 넷(KSBSN)



1. 개요

1) 설립배경 및 목적

- 구마모토 지역과제 해결과 사회 공헌을 지향하는 사람의 사업성확보 인식과 경영에 필요한 지식, 경험부족, 조언을 할 수 있는 전문가의 필요성
- 소셜비즈니스를 실천하고 있는 사람과 조직은 존재하나 인지도가 낮은 현실
- 소셜비즈니스를 지향하는 사람들과 육성 · 지원하는 조직들, 또는 양자의 교류에 대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상호 정보 교류 · 공유, 제휴 · 협동에는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타개하고자 설립되었다.

2) 설립

- 설립: 평성 24년 11월 29일 (수)
- 설립발기단체 : ①NPO법인NPO쿠마모토, ②NPO법인 사람·배움지원센터 구마모토, ③NPO법인 지역진단사 연구회, ④공익재단법인 네이처링재단, ⑤쿠마모토 학원대학, ⑥긴게이팜(쿠리타니회계사무소), ⑦쿠마모토 일일신문사(종합미디어국), ⑧쿠마모토 산업문화진흥(주), ⑨쿠마모토현 상공회연합회, ⑩쿠마모토상공회의소, ⑪공익재단법인 지방경제종합연구소, ⑫일본정책금융공사 쿠마모토지점 국민생활사업, ⑬쿠마모토현(상공정책과), ⑭ 쿠마모토시(산업정책과) (14단체)
- 설립취지
 - :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소셜비즈니스 지원에 종사하고 있는 조직·사람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상호연대·협동하면서 소셜비즈니스가 싹트는 [토양만들기]
 - : 사업성을 확보하면서 소셜비즈니스에 착수한다.
 - : 또한 착수하려고 하는 조직·사람을 [육성, 지지하기]를 목표로 한다.

2. 활동상황

① 페이스북 개설을 통한 소셜비즈니스 만들기를 위한 기반구축

- 초대자 (FB등록자) 수 : 175명
- KSBSN 활동보고와 이벤트·세미나 등의 고지, 초대자의 정보제공 등, 네트워크 기능의 기초적 부분을 구축

② 타마리바(마실과 같은 의미) 사업전개

- 소셜비즈니스(SB)에 관심있는 사람들이 만남의 장과 자리매김, 1회/월(제3수요일)의 정례적인 사업으로서, 지금까지 10회 개최.

※ 평성 25년 (2013)

- ①1월 23일 (수) 34명참가 복수그룹으로 나눠 SB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교환
- ②2월 20일 (수) 36명참가 자기소개시간과 희망자에 의한 PR토크
- ③3월 13일 (수) 28명참가 큐슈경제산업국 등에의한 관련시책소개 등
- ④4월 17일 (수) 32명참가 사례소개(냉난방시설메이커)와 참가자에 의한 PR토크
- ⑤5월 22일 (수) 25명참가 사례소개(프로농구팀 창설)
- ⑥6월 19일 (수) 25명참가 아침시장을 시작으로 [셔터 길 상점가의 재재흥]을 테마로 한 그룹디스커션
- ⑦7월 17일 (수) 26명참가 사례소개(시설운영과 일체가 된 스포츠 진흥)
- ⑧9월 18일 (수) 23명참가 사례소개(학생 인턴쉽 지원)
- ⑨10월 16일(수) 22명참가 사례소개(쿠마모토 프로오케스트라창립을 행한 활동)

※ 평성 26년(2014)

- ⑩1월 15일 (수) 13명참가 사례소개(지역커뮤니티브랜드를 이용한 비즈니스 창발)
- ⑪2월 26일 (수) 9명참가 사례소개(중심시가지상업가의 마을만들기 매니지먼트사업)

【第5回 タマリバ】



【第6回 タマリバ】



【第8回 タマリバ】



【第9回 タマリバ】



[그림 4] 타마리바의 진행모습 (출처: 구마모토 소셜비즈니스 서포트넷)

③ 소셜비즈니스 세미나(2013년 11월 15일 (금))

- KSBSN활동 1주년을 기념해서, SB에 조애가 깊은 교토산업대학의 오무로 준교수의 강연과 현대기업 활동을 소개. 기업이나 NPO관계자 등 28명이 참가.



[그림 5] 세미나의 진행모습 (출처: 구마모토 소셜비즈니스 서포트 넷)

3. 지원사례

① KSBSN에 참가하는 멤버(크로커스과의 코워킹)의 기업을 서포트

- 크로커스는 아이가 있는 엄마들을 중심으로 한 코워킹 스페이스의 제공이나 WEB제작, 팸플렛 등 작성, 엄마와 아이가 즐길 수 있는 이벤트 기획 등을 전개하는 소셜비즈니스임. 이 멤버기업에 수요창조형 등 기업·창업촉진보조금(경제산업성)의 신청지원 및 광고PR지원
- 이를 통해 2013년 7월 코워킹 스페이스 오픈하게 됨. 코워킹 스페이스는 다양한 업종, 연령의 사람들이 모여, 일하고, 노하우나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협동하는 장소로, 셰어오피스와 다르게, 구분은 없고, 이벤트를 개최하고, 참가자간의 교류 등 [커뮤니케이션]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특징.

V. 구마모토현의 사회적경제조직 활동

1. 치카켄(CHIKAKEN)

1) 배경 및 목적

- CHIKAKEN은 대나무를 이용한 조명제품 제작·판매 및 이를 활용한 축제기획을 하는 사회적경제조직이다. CHIKAKEN의 시작은 무분별한 대나무조림으로 발생한 환경피해를 지역사회가 관리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 회사대표인 미시로(三城)와 이케다(池田)는 이러한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나무를 이용한 조명제품을 만들기 시작하였고, 성공을 이루어내고 있다.
- CHIKAKEN은 회사대표의 소조대학 공학부 건축학과 우치마루(内丸)연구실(대표들의 출신 대학원)의 경험에서 비롯된다. 우치마루교수를 중심으로 연구실은 19년 전부터 우스키다케요이(うすき竹宵)라는 오이타현 우스키시(大分県 臼杵市)의 대나무등불축제의 기획 추진중에 있다. 이 축제를 기획했던 경험들이 현재의 CHIKAKEN이라는 사회적경제조직을 만든 원동력이었다.

2) 우스키다케요이(うすき竹宵) 축제란?

- 우스키시는 오이타현의 작은 소도시로, 일본의 지방도시가 겪고 있는 고령화로 인한 도시 공동화현상을 겪었다. 이로 인해 중심상권에는 셔터가 내려진 가게가 많아지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우스키시는 우치마루교수에 의뢰하였고, 우치마루교수 그룹은 대나무등롱(竹ぼんぼり) 오브제를 활용한 축제를 기획한다. 이것이 우스키다케요이(うすき竹宵) 축제의 시작이다.
- 19년 전 초창기에는 1500개정도의 대나무를 활용한 오브제 1개로 시작한 작은 규모였으나, 현재는 2만개 이상의 대나무가 사용되고 오브제 역시 30개 이상으로 도시 전체가 들쭉이는 규모로 발전하였다.
- 이러한 성공으로 인해 경제적 효과(연구에 따르면, 제4회 축제 개최 시점에서 4억엔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있었음)는 물론, 상점가 재생(16년간 150개정도의 새로운 가게가 생겨났음), 역사적으로 분단되어왔던 지역커뮤니티 재생, 고령자와 청년세대간 교류 활성화, 신규 관광객 증가 등 결과들을 얻었다. 이러한 성공은 규수의 다른 지역도 자극하였고, 다양한 등불축제들이 탄생한 계기가 되었다.



[그림 6] 우스키타케요이축제의 오브제 [그림 7]우치마루교수의 발표장면(구마모토현청)
(출처: www.visit-oita.jp)

3) CHIKAKEN의 성과

- CHIKAKEN의 활동은 환경문제를 제품으로 해결하는데 그치지 않고, 다양한 주체들과 연계협력하고 있다. 그 시발점은 역시 대나무 조명이다.
- 축제 등에 사용된 대나무조명은 화학처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일주일도 안 되어 썩기 시작한다. 그래서 축제 등에 사용된 대나무조명은 곧 쓰레기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쓰여진 대나무조명은 버려지지 않고 대나무 숯 및 대나무 비료로 재활용된다.
- 사업은 CHIKAKEN이 직접 하지 않고 마을기업들과 연계해 추진한다. 이는 마을의 활력을 불어넣을 뿐만 아니라, 특히 고령자와 청년간의 세대 간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효과를 만들어 내고 있다.



[그림 8] CHIKAKEN과의 연계사업을 통한 제품들(출처: CHIKAKEN 홈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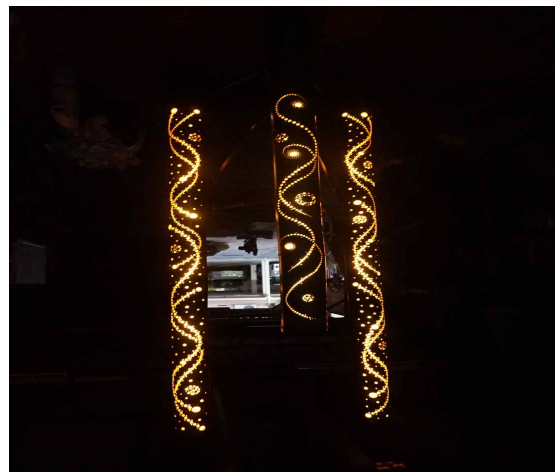
- CHIKAKEN은 현재 6명의 직원(대표포함)으로 구성되어 있다. 직원들은 구마모토현 출신이다. 직원 중에서는 대도시의 직장을 그만두고 고향에 돌아와 직장을 얻은 케이스도 있다.
- 일에 비해 봉급수준은 자신이 들이는 노력과 시간에 비해 높지 않았으나, CHIKAKEN에서 계속 일할 수 있는 것은 ‘보람’이 있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지역의 환경피해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만들어낸 제품을 보고 사람들이 기뻐하고 환호하는 그 감동을 잊을 수 없다고 한다.



[그림 9] CHIKAKEN의 사업을 설명하는, 열정 가득한 나카무라(中村)공장장



[그림 10] CHIKAKEN 공장



[그림 11] CHIKAKEN제품

2. 아소그린스톡 (阿蘇グリーンストック)

1) 배경 및 목적

- 지역진흥과 환경 보전을 위해 민간이 설립한 시민운동형 공익재단법인으로, 1993년에 설립되었다. 법인은 지역생협과 조합원(주로 주부)의 기부로 만들어졌다. 계기는 리조트건설의 반대하기 위한 활동이었다.
- 아소산은 세계최대의 칼데라지형으로, 뛰어난 경관을 가지고 있다. 일대에 리조트를 건설하려 했고, 아름다운 경관의 훼손을 우려한 지역생협이 기금을 마련하고 일대의 토지 등을 사들여 리조트건설을 막는데 성공한다.
- 이와 같은 사건을 계기로 아소산의 환경보존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된다.

2) 공익사업

① 자연보전사업

- 아소산의 초원은 천년전부터 채집, 방목, 들풀불농기 등 사람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 지고, 지켜져 왔다. 세계농업유산으로서 가치가 있는 초원이지만, 초원과 산림을 유지하고 보전하기 위해서 매년 ‘들에 불농기’, ‘불농기 주변(輪地:와치) 깎기’ 등을 해야 하는 현실.
- 그러나 목노(牧野)조합을 통해 구역별로 들풀불농기를 해왔던 낙농가들은 낙농업의 쇠퇴와 후계자부족으로 일련의 행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들풀에 불을 놓지 않으면, 초원은 사라지고 산림으로 변하여 ‘초원’이라는 아름다운 경관을 유지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 사업은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들풀불농기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였고, 자원봉사자들에게 일정한 교육 후, 목노(牧野)조합원들과 같이 들풀불농기를 실시하고 있다. 평성 10년(1999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등록자원봉사자수 680명. 10년이상 꾸준히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 있을 정도이며, 아소산의 초원을 지키는 데 중요한 사업으로 자리매김을 하였다. 구마모토현도 이런 중요성을 인식하여 ‘새로운 공공사업’지원으로 매뉴얼작성과 ‘큰일날뻔 했던 일’ 사례집 출판을 지원하였다.



[그림 12] 들풀불농는 모습 (출처:<http://www.asogreenstock.com/>)

② 수익사업

- 특산물판매사업 및 ‘아가소’농가에 융자사업(무이자)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특산물 판매사업은 도시민들에게 아가소의 육류 및 특산물 통신판매, 융자사업은 ‘아가소’주인으로부터 자금(아가소 예약대금)을 모아, 무이자로 낙농가에게 대부하고, ‘아가소’주인은 출자한 만큼의 소고기를 5년간 제공한다. 즉 도시민은 미리 5년치 소고기 값을 지불하고 5년동안 소고기를 먹는 것이고, 이 대금은 낙농가에 송아지구입 대금으로 대부하는 것이다.
- 이 사업은 아소그린스톡의 수익도 되는 동시에, 어려운 낙농가에 도움을, 더 나아가 초원을 지켜낼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는 데 의미가 크다. 특히 아가소는 우리나라 한우와 비슷하여, 살코기가 전체적으로 붉은 빛을 띠는 데, 이는 대리석과 같이 골고루 기름이 있어야 높은 등급을 받는 현 시스템에서는 높은 평가를 받기 힘들다. 그러므로 경쟁에서 밀린다고 한다.
- 높은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소를 될 수 있는 데로 움직이지 않게, ‘축사에 가두어 사육’을 유도한다. 이에 반해 아가소는 거대한 초원의 거닐며 풀을 뜯기에 높은 등급을 받기 힘들다. 이 조직의 수익사업 역시 친환경사육을 지지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겠다.



[그림 13] 아가소와 아소초원의 방목모습(출처:<http://www.asogreenstock.com/>)

3. 규슈바이오매스포럼(九州バイオマスフォーラム)

1) 배경 및 목적

- 규슈바이오매스포럼은 ①바이오매스 이용시스템의 구축과 사업성 조사와 연구, ②바이오매스의 이용을 위한 홍보/보급활동을 추진, ③네트워크 구축과 바이오매스에 관한 컨설팅을 하는 사회적경제조직으로, 순환형사회 구현을 위한 다양한 사업활동을 하고 있는데, 특히 산림바이오매스 활용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 산림바이오매스의 활용

- 산림바이오매스 활용은 임업의 활성화와 재해예방이라는 두 측면에서 중요성을 지닌다. 첫째 일본은 오래전부터 임업이 발달해 왔고, 인공림이 잘 조성되어 있다. 그러나 90년대 이후 해외의 값싼 원목수입과 목재수요의 감소로 인해 임업이 쇠퇴하기 시작했다. 임업의 쇠퇴는 비단 임업만의 문제가 아닌, 산림관리가 되지 않으면 산사태 및 홍수로 이어져 재해의 문제로 직결이 되었다. 자연자원은 활용의 문제뿐만 아니라 재해예방에도 직결되기에 임업과 산림바이오매스의 활용은 중요하다.
- 또한 자연재해가 닥쳤을 때 원거리 거대발전소는 무용하게 되곤 한다. 최근 동일본대지진을 통해 일본인들은 그것을 피부로 경험한다. 상시적으로 주위에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의 필요성을 절감한다. 포럼은 아소산의 거대한 초원과 산림에 착목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중이다.



[그림 14] 아소산 중턱에 위치한 포럼의 장작건조 시설

- 포럼의 주요한 관심은 ‘장작판매’에 있다. 포럼은 장작의 시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FAO의 통계에 따르면 일본의 장작사용은 거의 없는데(0.9m²/백만명·년) 반해, 유럽은 적게는 30배(스페인 37m²/백만명·년), 많게는 1000배이상(1015m²/백만명·년) 장작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들은 장작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기대하게 한다. 이러한 기대를 반영하는 듯, 포럼의 장작판매는 급격히 늘고 있다. 2009년 첫째 장작판매는 15만엔 정도에 그쳤지만, 2년째 150만엔, 3년째 380만엔으로 증가하였고, 작년에는 700만엔의 매출을 올렸다.

3) 네트워크 구축: 규슈장작목질펠릿활용협의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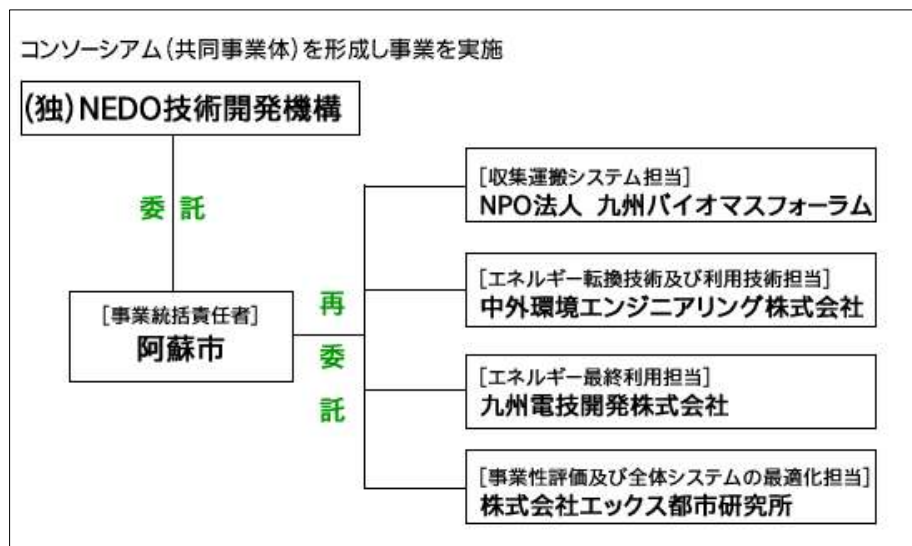
- 적극적인 장작시장의 확대를 위해서는 장작에 대한 인식전환과 장작스토브의 보급이 필수적이다. 특히 일본인들에게 장작은 구식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다. 이를 위해 포럼은 규슈장작목질펠릿활용협의회(KFWA, 이하 협의회)를 구성하였다. 회원은 장작과 펠릿생산자, 스토브판매자(10곳), 지자체(구마모토현, 아소시), NPO단체, 개인 등으로 구성된다. 이와 같이 산림바이오매스를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힘을 모아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
- 협의회는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되고 있는데, 특이한 점은 펠릿생산자와 스토브판매자, 개인이 납부하는 협의회 회비를 납부하고, 지자체 및 NPO단체는 회비를 내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유인즉 펠릿생산자 및 스토브판매자는 협의회 활동이 자신들의 사업매출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리고 개인 역시 장작 또는 펠릿할인권 등 혜택이 있기 때문에 회비를 낸다는 것이다. 즉 활동을 통해 직접적인 이득을 보는 주체들이 회비를 내는 것이다.
- 협의회는 일반인들에게 장작의 좋은 점을 알리는 한편, 장작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기 위해 다양한 이벤트와 세미나, 워크숍을 개최한다. 예를 들어 장작만들기 워크숍 또는 장작아트콘테스트 등을 개최하여 일반인들에게 장작이 자주 노출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일본 각지에서 추진하고 있는 나무정거장 사업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그림 15] ‘장작 아트콘테스트’와 ‘장작만들기 워크숍’의 포스터(출처: <http://qmaki.com/>)

4) 풀의 다목적 이용 시스템 구축추진

- 정식명칭은 ‘풀’계 바이오매스의 에너지이용 및 활용시스템실험사업(의 위탁사업)으로, 초원에 존재하는 미이용 바이오매스(억새 등)의 이용을 통해, 자연환경과 초원의 문화, 생활관습, 생태계기능 보전의 양립을 목적으로 한 바이오매스에너지시스템 구축을 위해 NEDO기술개발기구와 같이 컨소시엄 형태로 사업을 추진하였다. 규슈바이오매스포럼은 수집운반시스템을 담당하고, 엔지니어링회사, 규슈전기 등과 같이 사업을 추진하였고, 다음과 같은 협력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림 16] 컨소시엄 구성 및 조직별 담당사업(출처: 규슈바이오매스포럼 홈페이지)

- 이와 같은 협력관계를 통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풀’계의 바이오매스는 아소시내의 위치한 온수풀장의 물을 데우는 데 사용한다. 두 번째는 풀을 활용한 비료제조이다. 이는 전통방식의 비료제조로,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으며 이 비료를 사용한 농가소득에 보탬이 되고 있다. 세 번째는 스트로베일하우스(strawbale house), 즉 짚으로 만든 건축물을 만들고 있다.



[그림 17] 스트로베일하우스 건축장면 (출처: 규슈바이오매스포럼 홈페이지)

VI. 향후 교류협력 방안

VI. 향후 교류협력 방안

1. 구마모토현 및 KSBSN

1) 지역진흥과

- 시사점: 연수를 통해 ‘지역만들기 꿈챌린지 추진사업’에 대해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다. 사업은 사회적경제조직(커뮤니티 비즈니스)지원에만 국한되지 않고, ‘이주촉진(귀농귀촌)’, ‘교류확대’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원에 있어서도 육성단계와 기업화단계로 나뉘어 지원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지역지사 일으키기 사업, 지역자산활용사업 등 지원사업이 세부화되어 있다.

- 향후 교류 방향에 관하여

- ① ‘지역만들기 꿈챌린지 추진사업’은 시사점이 많은 사업으로, 구체적인 진행상황, 문제점, 과제를 세밀히 알아볼 필요가 있는 사업으로 판단된다.
- ②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경제조직 지원을 포함한) 지역만들기 한일지자체 정책세미나’ 등을 기획·추진을 염두해 볼 필요가 있으며, 또는 일정기간 연구자를 파견하여 연구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도 좋은 교류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2) 남녀협동참가과

- 시사점: ‘새로운 공공’사업은 현 충남도의 사회적경제 기반조성의 필요성과 맞아떨어지는 사업들, 즉 ‘이해촉진’, ‘인재육성’, ‘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고 판단된다.

- 향후 교류 방향에 관하여

- ① ‘새로운 공공’사업 역시 구체적인 진행상황과 문제점, 과제를 세밀히 알아볼 필요가 있는 사업으로 판단된다.
- ② 일정기간 연구자 파견을 통한 연구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3) 구마모토 소셜비즈니스 서포트 넷(KSBSN)

－ 시사점: 2013년부터 정례세미나 및 홍보를 통한 인식확산, 소셜비즈니스에 관심있는 자의 인적교류를 추진하였고, 기업서포트를 해 왔다. 그러나 조직의 전임담당자가 없는 등 아직 안정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그러나 일본의 사회적경제조직의 창업과 그 지원체계, 어려움과 니즈, 과제 등의 공유를 통해 충남도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참고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향후 교류 방향에 관하여

- ① KSBSN의 설립은 다양한 단체들의 이니셔티브가 있었으나, 그 중 구마모토현 상공정책과의 이니셔티브가 가장 중요한 요소로 파악되는 바, 상공정책과의의 꾸준한 교류를 통해 향후 진행상황을 체크하면서 동향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2. 구마모토현 사회적경제조직

1) 치카켄(CHIKAKEN)

－ 시사점: CHIKAKEN의 사례는 대나무피해라는 환경문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사회적경제조직 및 지역사회를 활성화시켰다는 점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가진다. 또한 CHIKAKEN의 배경인 우스키다케요이(うすき竹宵)라는 축제와, 우치마루교수 그룹은 충남도 사회적경제조직의 확산의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가진다.

－ 향후 교류 방향에 관하여

- ① CHIKAKEN과 같이 ‘지역자산+사회적경제’은 중요한 시사점을 주며, 특히 충남도 사회적경제조직에게 좋은 자극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좀 더 세밀한 연구조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② CHIKAKEN, 대나무등롱을 활용한 축제 등을 기획하고 조언을 한 우치마루교수와 의 지속적인 교류는 충남도 사회적경제의 활성화, 더 나아가서 **‘축제+지역만들기+사회적경제’**라는 큰 주제의 시사점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며, 적극적으로 한일연구포럼 또는 한일컨퍼런스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2) 아소그린스톡 (阿蘇グリーントック)

- 시사점: 아소산의 초원을 배경으로 한 사업은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특히 지역자산과 농업과의 상생관계를 이해하고 적극적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사회적 가치’는 우리 충남도의 사회적경제조직 발굴과 확산에 있어서 시사점을 준다.
- 향후 교류 방향에 관하여
 - ① 아소그린스톡은 지역자산을 보호하고 유지하기 위해 오랫동안 현내외의 많은 자원봉사자 그룹과의 긴밀한 관계를 만들어왔다. 이것은 ‘사회적경제+자원봉사’의 관계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 할 수 있다.
 - ② 이러한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예를 들어 자원봉사자간 한일집담회 등)이 있다면, 자원봉사자와 사회적경제조직간 교류가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3) 규슈바이오매스포럼(九州バイオマスフォーラム)

- 시사점: 규슈바이오매스포럼은 바이오매스의 적극적인 이용, 그리고 이를 위한 시스템 구축에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특히 ‘장작’활용은 최근 일본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나무의 정거장’사업과 맥을 같이 한다.
- 향후 교류 방향에 관하여
 - ① 규슈바이오매스포럼의 활동에 대한 공유뿐만 아니라, 포럼사업을 벤치마킹할 필요도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충남도의 다양한 조직들과의 교류는 충남도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사회적경제’의 관심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계기 될 것으로 판단된다.
 - ② 그러므로 규슈바이오매스포럼과는 ‘에너지+사회적경제’ 라는 주제로, 적극적으로 한일연구포럼 또는 한일컨퍼런스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참고자료- 방문지 담당자 및 연락처〉〉

번호	일본이름	이름	소속(직위)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1	中坊真	나카보오 마코토	규슈바이오매스포럼 사무국장	0967-22-1013	0967-22-1014	nakaboh@aso.ne.jp
2	内山隆	우치야마 타카시	규슈바이오매스포럼	0967-22-1013	0967-22-1014	kbfsales2@gmail.com
3	桐原章	키라하라 아키라	아소그린스톡 사무국장	0967-35-1110	0967-35-1151	green-k@aso.ne.jp
4	山本保孝	야마모토 야스타카	아소그린스톡	0967-35-1110	0967-35-1151	green-km@aso.ne.jp
5	中村友哉	나카무라 도모야	CHIKAKEN	080-8352-5911		info@chikaken.com
6	奈須悦雄	나스 에츠오	구마모토 SB 서포트넷	096-211-2212	096-211-2231	en.etsuo@sc.kcn-tv.ne.jp
7	渡辺純一	와타나베 준이치	구마모토현 경제교류국 국장	096-333-2332	096-385-7077	watanabe-j-dz@pref.kumamoto.lg.jp
8	清田聡美	키요타 사토미	구마모토현 상공정책과	096-333-2312	096-385-5850	kiyota-s-dz@pref.kumamoto.lg.jp
9	上田哲也	우에다 테츠야	구마모토현 상공정책과	096-333-2311	096-385-5850	ueda-t-dw@pref.kumamoto.lg.jp
10	吉村了介	요시무라 료스케	구마모토현 국제과	096-333-2158	096-381-3343	yoshimura-r-dz@pref.kumamoto.lg.jp
11	堀敦博	호리 아츠히로	구마모토현 국제과	096-333-2158	096-381-3343	hori-a@pref.kumamoto.lg.jp
12	安武大記	야스타케 다이키	구마모토현 남녀참가협동추진과	096-333-2286	096-387-3940	yasukake-d@pref.kumamoto.lg.jp
13	平田道生	히라타 미치쇼	구마모토현지역진흥과	096-333-2135	096-381-9001	hirata-m-dw@pref.kumamoto.lg.jp
14	下田裕香	시모다 유카	구마모토현 관광과	096-333-2332	096-385-7077	shimoda-y-w@pref.kumamoto.lg.jp
15	田中伸也	다나카 신야	구마모토현 인사위원회 사무국장	096-383-1111	096-387-4813	tanaka-s-hr@pref.kumamoto.lg.jp